THE DAEGU



May 2017

Colorful Daegu

www.daegucompass.com

## **ISSUE 74**

JAZZ IN DAEGU THE 2017 SPRING FESTIVAL SEASON HAS BEGUN!

> TOMATILLO THE NEW MEXICAN RESTAURANT IN TOWN

> > PIGS OUT OF THEIR BLANKET SHINSEGAE'S DIMDIMSUM

DAY TOURS FROM DAEGU

ONE-DAY TRIP TO GANGJIN



ISSN 2384-1559

## EDITOR **NOTES**

Hi Daegu,

Welcome to the May 2017 Daegu Compass. We are excited to bring you another fantastic issue! We have two new restaurant reviews, details about a great pub in Duryu, information about the upcoming Jazz Festival season, and much much more. We want to thank all our Compass readers and contributors who make this information guide such a great publication.

If you have a special restaurant, cafe, or bar that you like to go to - and you think our readers should too - send an email to our Assistant Editor at alex@daegucompass.com.

Also, if you are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be a writer, photographer or get involved with the Compass, send us an email at lindsay@daegucompass.com - we hope to hear from you soon. We also want to take a moment and thank all of our sponsors old and new for helping to keep the Compass a free publication.

Best. Yuri Lee and The Daegu Compass Team

Managing Editor Yuri Lee Publisher Miyong Ha **Creative Director** Scott McLaughlin Editor-in-Chief Lindsay Mickles Assistant Editor Alex Hernandez . **Graphic Designers** Eun Ji Lee Translation Director

Scott McLaughlin & Yujeong Lee Event Director Yuri Lee

•

Writers. Proofreaders and Photographers Alex A-che Gwendolvn DeSilva **Kimberly Williams** Lindsav Mickles Michael Clark Sarah Lee Yujeong Lee

Sales & PR

Yuri Lee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3길 14(범어동) 401호 Fax 053-742-0393 Tel 053-742-0392 Mob 010-5386-0908 E-Mail yuri@daegucompass.com

> Cover photo submitted by Cover photo by Jazz in Daegu



Written and photographed by Gwendolyn DeSilva [http://memoriesnotmaterialthings.com] Translated by Yujeong Lee



My life philosophy is collect experiences not stuff. Yet with just one month left on my teaching contract, I still hadn't ventured to a jjimjilbang. I love hot tubs and saunas, but I wasn't sure about relaxing in them naked. Deciding this was my last opportunity, I finally plucked up the fortitude to visit Elybaden Spa near Sangin.

필자의 삶의 철학은 아무 것이나가 아닌 경험을 쌓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직장과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찜질방에 가보지 못 했다. 따뜻한 욕조와 사우나를 매우 좋아 하지만 나체로 휴식을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 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마음 먹고, 마침내 불굴의 용기를 쥐 어짜내어 상인동 근처의 엘리바덴에 가 보았다.

I set out for West Daegu with rising levels of anxiety building. My wholesale ignorance of Korean jjimjilbangs isn't the only cause for the unease. It's the daunting challenge of navigating this foreign-concept with zero Korean and doing it in the buff. Before I'm ready, I find myself standing in front of the five-story complex. 점점 높아져가는 걱정과 함께 대구의 서쪽지역을 향해 길을 나섰 다. 한국 찜질방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것만이 불안함의 이유 는 아니었다. 한마디의 한국어도 못 하면서 알몸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그러한 낯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움츠러들게 하는 도전 인 것이다. 준비가 되기도 전에 5층짜리 건물 앞에 서 있는 자신 을 발견했다.

I courageously enter and immediately I'm faced with a registration desk. I gingerly walk up to a free attendant. Between a mix of Konglish and gestures, I sputter out 'Annyeonghaseyo. Jjimjilbang, ne. Waterpark, ayino.' She miraculously understands that I only want entry to the sauna and not the combined ticket that includes the waterpark. She presents me with a waterproof wristband, which I later learn is both your locker keys and a charge-card allowing you to purchase food, drink and amenities without carrying around cash.



용감하게 건물로 들어서자 바로 매표소와 마주하게 되었다. 조심 스럽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고 콩글리쉬와 몸짓발짓 이 뒤섞인 가운데, 서둘러서 "안녕하세요. 찜질방, 네. 워터파크, 아니요."라고 말했다. 매표원은 기적적으로 필자가 사우나 입장 만을 원하고 워터파크 이용이 결합된 티켓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이해했다. 매표원은 방수 손목 밴드를 보여주었고 나중에 이 것이 옷장키와 함께 현금을 들고 돌아다닐 필요없이 음식, 음료 수, 목욕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선불식 충전 카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Gaining confidence, I go through the turnstiles and meticulously follow the women in front. I'm directed to the shoe lockers on my right. I locate my designated locker number, remove my ballet pumps, and enter the segregated changing facilities. Inside, I exchange my paper ticket for two minuscule towels and a pile of clothes to an ajumma behind a desk of trial-sized toiletries. I scour the lockers for number 825, which corresponds with my wristband. Found, I strip all my clothing off and put them inside. I feel exposed with nothing but my wristband for protection.



-continued on p26-



자신감을 얻고서 회전문을 통과하여 앞에 있는 아줌마의 뒤를 주 도면밀히 따라갔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신발장으로 바로 가게 되었다. 지정된 보관함 숫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었고 발레펌 프스를 벗은 후 성별로 분리된 탈의실로 입장했다. 안에서는 휴 대세면용품이 가득한 데스크 뒤에 있는 아줌마에게 종이표를 주 고 두 장의 작디작은 수건과 옷 한 뭉치로 교환했다. 그리고 손목 밴드의 숫자와 일치하는 825라는 숫자를 찾아 헤맸다. 찾았다. 모든 옷을 벗고는 옷장 안에 집어넣었다. 보호를 위한 손목밴드 를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없이 노출되어 있다고 느꼈다.

Clutching my mustard-colored hankie to my chest like a child with its comfort blanket, I enter the vast sauna area, mokyongtang, stark naked. I expect the eyes of several hundred Korean women to swivel and stare, but no one seems to mind the lone waygook. I take stock of the facilities: bubbling 43C hot pools in the centre, an ice plunge pool along the back wall, three scorching 70C saunas in the left corner, ondol stone slabs for sleeping on my left, and five rows of bathing stations to my right. 애착 이불을 갖고 있는 아이처럼 겨자색 수건을 가슴께에 꼭 잡 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우나 장소인 목욕 탕으로 입장했다. 빙글빙글 돌며 빤히 쳐다보는 수백명의 한국여 자들의 눈을 예상했지만 아무도 홀로 있는 외국인을 신경쓰지 않 는 듯 했다. 시설을 둘러보았는데 중앙에 있는 부글거리는 43도

의 온탕, 벽을 따라 있는 얼음같이 차가운 탕,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세 종류의 70도씨 사우나는 왼쪽 코너에, 잘 수 있는 온돌로 된 바닥이 왼쪽편에, 몸을 씻는 시설 다섯 줄이 오른편에 있었다.

I head for the hot pools and find a chaise lounge-like seat with back jets. I stare intently at the TV projecting news in Hangul to keep me from accidentally starring where I shouldn't. A curious toddler clambers into the water and stares intently at me instead. A blue straw dangles from his mouth. He notices me noticing him and says 'Snorkel,' before dipping his head under. His innocent presence makes me laugh. I begin to relax, so decide to explore. 온탕으로 향하자 등 마사지 제트가 있는 썬배드 같이 생긴 좌석 을 찾을 수 있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실수로 빤히 쳐다보는 일 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어로 나오는 뉴스가 나오는 TV를 뚫어져 라 보고 있었다. 대신, 호기심 많은 아기가 기어올라와 물 안으로 들어와서 필자를 열심히 빤히 쳐다보았다. 파란색 빨대가 아기의 입에서 매달려있었다. 필자가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자 머리를 물 아래로 집어넣기 전에 '스노클'이라고 이야기해줬다. 아기의 순수함이 필자를 웃게 만들었다. 느긋이 휴식을 취하면서부터 좀 돌아다녀보기로 했다.

I head to the 'Salt Room' sauna where inside I find a hollowed out tree stump brimming with salt. I start to rub the white granules on my legs when a friendly ajumma gestures that she can scrub my back. Hesitatingly, I let her. I learn later this is common, but feeling mildly traumatized by the experience, I quickly leave for the safety of the 'Germanium Dry' sauna next door. After reaching boiling point, I plunge into the cold pool, which is surprisingly refreshing. As I linger there for awhile, I notice two older ladies grabbing their belly fat and comparing their bulges unselfconsciously.

속을 파서 소금이 한 가득 채워진 나무 그루터기가 내부에 있는 것을 발견한 '소금방' 사우나로 향했다. 소금에 다리를 문지르기 시작하자 어떤 친절한 아줌마가 등에 소금을 문질러 주겠다는 시 늉을 했다. 망설이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나중에 이런 것이 흔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경험으로 인해 그 때의 느낌이 약 하게 트라우마를 만들었다. 필자는 안전을 위해 서둘러서 옆에 있는 '게르마늄 건식 사우나'로 이동했다. 점점 끓어오르는 한계 점에 도달하자 냉탕으로 뛰어 들었는데 냉탕은 놀랍게도 기운을 차리게 해 주었다. 그 곳에서 잠시 동안 머무르자 남의 눈을 의식 하지도 않고 나온 배를 비교하며 뱃살을 움켜쥐고 계신 나이 많 은 아줌마 두 분을 보게 되었다.





Suitably prune-fingered, I leave to explore jimjilbang. I adorn my faded red shorts and t-shirt set and with bare feet trundle up to the 3rd floor. The lively co-ed space is being enjoyed by couples, families and girlfriends. A survey of the floor reveals a plethora of entertainment options from a food court, coffee shop, mini noraebangs, arcade games, a children's play area, a large chill-out zone covered in mats, dark coves for sleeping, and to my delight two dozen Bodyfriend chairs, where an indulging 15-minute roller pressure massage costs a mere 2,000W. 적당히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진 채로, 찜질방을 돌아보러 나섰다. 빛바랜 빨간 바지와 티셔츠 세트와 맨발로 3층으로 올라가는 게 무척 마음에 들었다. 커플, 가족, 여자친구들끼리 온 사람들이 그 남녀 공용의 활기찬 공간을 즐기고 있었다. 층을 돌아보자, 푸드 코트, 커피샵, 미니 노래방, 아케이드 케임, 어린이 놀이방, 매트 가 깔린 거대한 휴식공간, 취침을 위한 어두운 동굴 같은 공간부 터 필자의 기쁨인 마사지체어 24대까지 많은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5분간의 롤러 마사지가 겨우 2천원 밖에 하 지 않았다.

I also discover several clothed saunas - one with a heat of 87C - and a cooling 'Ice Room'. I decide my favorite space is the 'Salt Room', whic h on this floor has moodenhancing Himalayan rose-colored salt for walls. As I lay on the heated rocks trying to mediate, I chastise myself for not gaining the courage to visit sooner.

또한 몇몇 옷을 입고 들어가는 사우나도 발견했다. 하나는 섭씨 87도짜리였고, 하나는 시원한 '아이스룸'이었다. 가장 좋아했던 공간은 '소금방'이었는데 이 쪽에는 벽에 기분을 좋게하는 히말 라야산 장밋빛 소금이 있었다. 명상을 하기 위해 달구어진 돌 위 에 누웠을 때 더 일찍 올 수 있는 용기를 얻지 못 한 스스로를 나 무랐다.

## **Essentials:**

How to get there: Sangin Subway (Line 1). Exit #4. Walk straight 100feet. Take the 706 bus two stops. Cross the street and head straight. The spa is on the left hand corner.

Location: 8-6 Sanginseo-ro, Sangin 3(sam)-dong, Dalseogu, Daegu

Cost: 12,000W (Sauna Only). 27,000W (Combined Waterpark Ticket) 피소 내용

가는 방법 : 상인역(1호선) 4번 출구로 나와서 조금 걷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706번 버스를 탄다. 두 정거장을 지나 내려서 길을 건너 계속 직진하다. 엘리바덴은 왼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다. 주소 : 대구 달서구상인서로 8-6 입장료 : 12,000원(사우나), 27,000원(워터파크 포함)

